

“대선 중립 지켜달라” “내가 알아서 판단”

이명박, 어제 DJ 예방...‘빠 있는 대화’ 오가 “한나라 도와 달라” “너무 세서 그럴 필요 있나”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후보는 29일 김대중, 전두환 전 대통령을 잇따라 예방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연희동 전 전 대통령 자택을 방문한 데 이어 오후에는 동교동 김대중도서관으로 김 전 대통령을 예방, 대선을 앞둔 정국 현안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이 후보와 김 전 대통령과의 면담은 팽팽한 긴장감 속에 진행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날 김 전 대통령과 면담에서 이 후보가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했으니 (대선에서) 어느 한쪽에도 치우치지 않았으면 한다”며 대선 개입을 경계하자 김 전 대통령은 “한나라당이 너무 세서 (내가) 도와 줄 필요가 있느냐”고 반박했다.

그러자 이 후보가 “그렇지 않다. 나는 호남 지역도 자주 간다. 호남도 많이 변했다고 생각한다”고 응수하자 김 전 대통령은 “(호남에서) 이 후보의 지지율이 높다고 신문에 났던 데...”라고 말했다.

이에 이 후보는 “아직 여권의 후보

가 결정되지 않아서 그렇다. 이번 선거에서는 지역색이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답하자 김 전 대통령은 “이미 호남은 영남 사람인 노무현 대통령을 뽑은 적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가 다시 “그것은 김 전 대통령 때문이 아니다. 전직 대통령을 잘 모시려고 오늘 방문했다. 어느 한 쪽에 치우치지 말아달라”고 거듭 당부했으나 김 전 대통령은 “내가 알아서 잘 판단하겠다”고 잘라 말했다.

김 전 대통령은 한나라당 경선이 후유증 문제와 관련, “아주 불합이 잘린 것 같다”고 평가하면서 “국민이 불 배 좋은 정책결정을 하고, 또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계기가 되도록 앞으로 하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한편 이날 면담에서 남북문제와 관련, 이 후보는 “핵문제 해결이 남북문제를 푸는 첫 단추”라고 말했고, 김 전 대통령은 “통일은 서둘러서는 안 된다. 독일도 지금까지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에 앞서 이날 오전 이뤄진 연희동 전 전 대통령 방문에서는 한나라



한나라당 이명박 대통령 후보가 29일 오후 서울 동교동 김대중 도서관을 예방해 김대중 전 대통령과 악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당 경선 과정, 아프가니스탄 인질 석방 등이 화제가 됐다.

김 전 대통령은 이 후보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환관까지 싸울 때는 싸우고, (이후에는) 패어플레이를 해야 한다는 것”이라면서 “같은 집안끼리 싸우다 보면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얘기까지 들쭉된다. 잘 활용하면 대 비책도 된다. (경선을 보니) 진짜 민주주의를 하는 것 같더라”고 ‘관전 소감’을 밝혔다.

김 전 대통령은 아프간 인질사태 해결과 관련, “난 이제 많이 살았다. 인질을 안 내놓으면 내가 인질이 돼

서 그 사람들을 풀어줄 수 없을까 우리 비서들에게 이야기했다. 난 특수훈련도 받아서 생활하기도 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 후보는 30일에는 김종필 전 자민련 총재도 예방할 예정이다.

/임동욱기자 tuim@연합뉴스

한나라 연찬회 반쪽행사 되나

오늘 구려서 화합 연찬회 차츰 핵심 인사 대거 불참

한나라당은 30~31일 이틀간 구려 지리산가족호텔에서 ‘경제 대통령 이명박, 민생정당 한나라당’을 주제로 국회의원·당원협의 회원장 연찬회를 개최한다.

이번 연찬회는 경선 기간 당이 이명박 후보측과 박근혜 전 대표측으로 갈라 치열하게 대립했던 앙금을 풀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됐다. 이 후보의 최대 당면 과제인 당내 화합 도모를 위한 첫 이벤트로 호남에서 갖는 점도 주목된다.

행사 내용도 참석자들이 대화의 시간을 많이 가질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첫날에는 강제집 대표와 이 후보, 신임 안상수 원내대표의 인사말과 신임 사무총장 및 정책위의장의 당부보고에 이어 외부인사 특강 정도만 들은 뒤 반주를 곁들인 ‘화합의 만찬’을 통해 경선기간 쌓였던 화포를 풀게 된다는 게 당직자들의 설명이다.

다음날에는 지리산 정상재~노고단 구간을 두 시간여동안 함

께 오르면서 합심을 통한 정권교체의 의지를 다질 예정이다.

이 후보도 참석자들과 함께 1박을 하면서 모든 일정에 참여하기로 했다. 그는 특히 대화의 시간을 통해 경선 기간 일어났던 모든 일을 잊고 자신을 중심으로 힘을 합쳐 반드시 정권을 탈환하고 고강조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날 연찬회가 이 후보와 당 지도부의 의도대로 화합의 시발점이 될지는 미지수다. 박 전 대표는 물론 그의 경선캠프에 속했던 핵심 인사들이 대거 불참할 것으로 알려져 오히려 ‘반쪽 워크숍’이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많다.

의원 10여명 가량이 개인적 사정을 이유로 불참하고 원외 당협위원장들 중에서도 상당수가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박재순 전남도당위원장은 “후보 선출 전담대회 이후 처음으로 호남에서 화합을 다지는 대규모 행사를 갖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한나라당은 17대 국회 출범 후 첫 연찬회도 곡성에서 개최한 바 있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광주시 내년 국비 확보 ‘청신호’

민주신당·지역 국회의원들 “광주 예산 확보 적극 돕겠다”

광주시의 내년도 국비 예산확보에 청신호가 켜졌다. 박광대 광주시장이 대통령민주신당의 창당의 산파 역할을 함에 따라 여권 지도부에서 광주시의 내년도 예산확보에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한 것이다.

우선 29일 열린 광주시와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들의 내년도 국비 예산 확보 간담회는 이례적으로 여권인 민주신당의 원내대표실에서 열렸다. 박광대 광주시장과 함께 대통령 민주신당 창당의 주역에 맡았던 김효석 원내대표가 가까이 회의실을 내주며 회의의 진행에 나섰다.

여권의 원내대표가 자신의 사무실에서 특정 광역단체의 예산 간담회를 개최한 것은 유례를 찾기 힘든 일이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는 원혜영 국회 예결위원장과 오영식 예결위 수석

부의장이 참석, 적극적인 예산 지원을 약속했다. 국회 예결위원장과 수석부의장이 특정 광역단체의 예산 간담회에 참석해 지원을 약속하는 일도 특히 이례적인 일이다.

여기에 박 시장과 다소 불편한 관계가 있었던 열린우리당 출신의 민주신당 소속 광주시의원 국회의원들도 광주시의 내년도 국비 예산 확보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피력하는 등 화기에애한 모습을 보였다.

또한, 유선호, 채일병 의원 등 전남 지역 민주신당 소속 예결위원들도 이날 간담회에 참석, 광주시의 내년도 예산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이날 박광대 시장은 “일부 사업 예산에 대해 정부 부처에서 미온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며 지원을 부탁하는 한편 “로봇랜드, 한국 민주주의 상징 전당의 광주 유치가 절실하다”며 적극적인 관심을 요청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이명박 ‘외연 확대’ 본격화

외곽기구 구성·외부인사 영입 거론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후보가 외연 확대에 본격 나선다.

후보 당선 9일째인 29일 후보 비서실장과 사무총장 인선을 마무리함으로써 당내 1차 과정을 매듭지은 만큼 이제 서서히 당밖 우군 확보 작업에도 눈을 돌리려 하고 있는 것.

이 후보는 후보 당선 직후에도 줄곧 정권교체를 염원하는 제 세력들과 연대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해 왔다. 안정적 집권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선 지역과 정파를 초월하는 ‘정치연대’는 물론 건전한 시민사회세력들과의 제휴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에서다.

현재로서는 후보 본인 보다는 경선 캠프 좌장격이었던 이재오 최고위원 등 핵심 측근들이 열심히 뛰고 있다. 이 최고위원은 앞서 27일 “이번 주

부터 외연 확대에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고, 실제로 최근 일부 뉴라이트 쪽 인사들과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후보 측은 우선 추석연휴 직후로 예정된 선대위 발족을 전후해 정권교체에 뜻을 같이하는 시민사회단체나 외부 명망가 등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국민운동본부 형태에 ‘외곽기구’를 구성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전두환 전 대통령을 예방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외곽기구 구성계획과 관련, “아직 그런 걸 말할 수 있는 단계가 전혀 아니다.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며 거리를 뒀으나 언연 중에 비슷한 구상이 있음을 내비쳤다. /연합뉴스

박근혜 당내 세력화 여부 주목

추측 ‘인적 청산 가능성에 ‘역지력’ 필요

한나라당 경선에서 석패한 박근혜 전 대표 측 인사들이 향후 당내에서 세력화를 시도할 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번 경선에서 이 후보 측과 함께 당을 양분하는 현실적인 힘을 확실하게 보여준 만큼 선거에서 졌다고 하더라도 이 세가 당장 소멸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지적이 높아지고 있다. 여기에에는 이 후보 측이 의한 ‘인적 청산’의 가능성을 반감시킬 ‘역지력’에 대한 필요성도 작용할 수 있다.

박 전 대표의 한 측근은 29일 “이 후보가 꾸밀 선대위 구성이 변수인긴 하지만 경선 기간 캠프에서 일했던 분들은 기본적으로 박 전 대표가 좋아서 똥친 이들이 많았으므로 대체로 같이 가지 않겠느냐”고 전망했다. /연합뉴스

‘개별 행동’은 가급적 자제하고 ‘행동 통일’을 할 가능성이 크다는 발언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 측근은 또 “구체적 안이 나오면 캠프에 참여했던 국회의원이나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모일 공간이 있어야 하지 않느냐는 이야기도 있고, 원내에서 연구단체나 국가발전연구회 같은 당내 의원모임의 형태를 구성하는 것도 한 번 고려해볼 수 있지 않느냐는 이야기도 있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의 한 측근은 “박근혜라는 이름을 보고 1년 이상 동고동락한 사람들이 많을 선거에 졌다고 어느 날 갑자기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는 없지 않느냐”고 공감을 표시했다. /연합뉴스

DJ 내달 중순 訪美

김대중(DJ) 전 대통령이 내달 중순에 미국 방문길에 오를 것으로 29일 알려졌다.

김 전 대통령의 방미는 지난 2005년 4월 미국 아시아재단 초청으로 샌프란시스코를 방문한 데 이어 약 2년 5개월만에 이어 해외 방문은 지난 5월 베를린 자유대학이 제정한 제1회 자유상 수상을 위해 독일에 다녀온 뒤로 4개월만에 이뤄지는 것이다.

이번 방미는 미국 빌린턴 전 대통령 초청에 따른 것으로, 김 전 대통령은 방미 기간 미국 기자회견을 연설을 비롯, 조야 관계자들과 만나 북핵, 한반도 문제와 한반도 평화체제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눌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대인부동산컨설팅
☎ 011-625-0510
(쌍촌동 한국병원 옆)

식당, 일식, 찻집, 레스토랑, 고전문점 적합
- 1층 50평 임대
- 1층 30평 임대
- 봉선동 한구·쌍촌·야외점 정문 앞

화원임대 (1층 25평 봉선동 화원화적지)
- 봉선동 최고요지
- (쌍촌·한국아파트 정문 앞)
- 최고의 주거지역
- 초·중·고 인접

화원 임대
- 봉선동 쌍용·한국아파트 입구
- 대도변 사거리코너
- 5층 103평 보어 빌185만
- 최고 인테리어 사설 비품 포함

토지매매
- 광산구 상등동 하남저지구 뒷면 - 담750평 평당75만원(자연녹지)
- 8m도트집 6차선계획도로점
- 수원저지구 D블록 근린생활지역 - 대70평 평당 650만

상가건물매매
- 봉선동 쌍용아파트 정문 앞 - 대지 140평, 건물 200평, 매매가 11억5천(중저4억)신축건물

모델매매
- 여수시 화동 비닷가방 - 대지370평 건평 560평 객실 42 용자15억 매매가 25억 월매출 4천만 이상

금부부동산컨설팅
☎ (대)261-8948 ☎ 011-602-2233
(산수동 543-51 무림대문입구 상가리)

토지매매
- 나주시 양림동 2차지역 해당 전입면적 1550㎡ 5500㎡ 노 인입면, 1000㎡에 해당 매각 1500만
- 대구 남구 중구지역 1500㎡ 매각 1500만
- 서울 아산역 1000㎡ 매각 1500만
- 양천구 양천동 1000㎡ 매각 1500만
- 양천구 양천동 1000㎡ 매각 1500만
- 양천구 양천동 1000㎡ 매각 1500만
- 양천구 양천동 1000㎡ 매각 1500만

건물매매
- 대구 북구 동구지역 1000㎡ 매각 1500만
- 대구 북구 동구지역 1000㎡ 매각 1500만
- 대구 북구 동구지역 1000㎡ 매각 1500만
- 대구 북구 동구지역 1000㎡ 매각 1500만

고시원매매
- 대구 북구 동구지역 1000㎡ 매각 1500만
- 대구 북구 동구지역 1000㎡ 매각 1500만
- 대구 북구 동구지역 1000㎡ 매각 1500만
- 대구 북구 동구지역 1000㎡ 매각 1500만

주유소매매
- 대구 북구 동구지역 1000㎡ 매각 1500만
- 대구 북구 동구지역 1000㎡ 매각 1500만
- 대구 북구 동구지역 1000㎡ 매각 1500만
- 대구 북구 동구지역 1000㎡ 매각 1500만

민용과 경직으로 방방곡곡 부동산컨설팅
☎ 010-3002-0099
(062) 371-0001
www.방방곡곡.com

토지매매
- 광산군 대도변 운천동 코너 일반상업지역(지하철역 코너) 250평 평당 1천만(조정가)
- 삼우지구 중심상업지역 공시지가수준(분할가능) 500평 평당 750만원
- 공학 맞은편 예상장비로워 매입지 5001평 545만원
※그외 250여건 매물 확보 선명현명※

상가신축건물 임대
- 삼우지구내 E마트 아래4층 신축물 1층 118평, 2~4층 140평 전층일괄 임대수수료대장, 병의원, 보석, 고급여성의류
- 삼우지구 SM빌딩 지하노래방 70평, 2층 3층 일반음식점, 사무실 134평
- 풀러버스부근 노래방, 유흥시,권 저점
- 센트럴관광호텔 부근 유흥 노래방(상업중)시.권조점가능
※삼우지구내 상가 전담부서 운영※

• 용봉동 M타워 빌딩 분양임대 1층국민은행임대 1.23잔여층

홈페이지에서 매물 등록도 하시고 검색하여 공종 공개 하십시오

A+ 에이플러스공인중개사
시장흐름을 예측하는 전문가들의 자산컨설팅평가
광주·전남권 토지·건물 구합
Tel : (062)973-9174, 016-757-8800

매매상업임대·사업목적부지·건물·자산투자부지 등 계약목적에 최적달성하고 적정비용기간은 예측하는 매매상당 거래 전문성·최상의 경제효과와 신속성, 평판적 안전성, 사회적 비벌보호를 지키는 거래

첨단지구상업용지
평균가격 : 2000만원~12000만원
면적 : 240 270 510 1100 3000 100 111 115 180 200 250 등

상무지구
260평 평당 450만~2000평 당 1200만

상무지역 녹지 사업부지
충전소주유소부지 890평 930평
골프연습장부지 1만 11만 2천평
이주지역 : 78평 당 400만, 1.5 대수
합의임대목적지 : 88평 당 190만 등
불투공급부지 2900 2500 4900평
수원동 4차선길 1200평 1800평
골프연습장 : 15억 수억정도를
상가용 2차선길 2500평

전용가능한사업부지
자연녹지 : 3800평 대원지전입가 6차선길 평당 90만
생선녹지 : 2800평 광동권전입가 평당 65만

우량임야
25만평 : 광주25만 연수원복지시상업골프장
50만평 : 광주25만 골프연습장
15만평 : 광주40만

골프장부지
5000평 : 담양 고속도로 7분
7000평 : 담양 고속도로 10분

공장
정점 3000평 하남공단 880평

모 집
실전경험 풍부한 실장님과 적극적인 남·여가족을 모집합니다.

• 광주·정평권 토지 건물 •
투자유망물건 다량 보유(0천만원~ 000억원)
062)973-9177, 011-625-1362
첨단지구 국민은행 주차장옆도 모집시요

현대공인중개사
☎ (062)371-1900, 010-2006-0115
(삼우 우리병원에서 50m 지점. www.85858949.co.kr)

전원주택용지 24필지 선착순 분양
(전문직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단체 분양 환영)
● 위 치 : 담양군 용면 추성리 산28번지 일대
● 분양면적 : 205평서 414평까지
● 분양 가 : 상담 후 결정

● 본택지의 특성 ●
1. 접근성이 용이함 - 동광중(주)에서 30분거리
2. 정남향으로 단지를 배치하여 조망 및 일조권 확보
3. 주변의 레저 및 관광명소들이 근거리에 위치 (추월산, 담양리조트, 죽녹원, 기미골 생태공원 등)
4. 투자치가 높음

● 급히 구 합니다 ●
● 그린벨트 농지 3,000평 구합
서구 남구 경지정리된 농지(대도동)
● 광산구 무산동 농지 구합(비행장 맞은편(약2,000평))
● 광리지역 토지 구합
(광산구 산도동 분랑동 관내지점 필수에 관계 없음)
● 묘지구합 : 1,000평 이상
(함평나산 / 나주노안 봉황 금천 다도 / 장성)

저희 협소는 20년 가까운 중개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토지의 매매를 전문적으로 중개 합니다.
부동산 관련 직종의 전문가와 일치선정에서 준공까지 한스름으로 컨설팅 하여 드립니다.
병원, 공장, 원목, 식당, 모델, 차고지, 전원주택, 주유소및가스충전소 부지, 투자용토지, 상가건물

법원경매 전문회사
- 불 앞치가는 사팔불 - (주)옥선코리아
(법원경매인입찰장 앞) 상담전화 : (062) 222-8446

성공적 파트너 / (주) 옥선코리아 무료상담
관리번호, 영도 유치권내역서 및 성립여부, 낙찰가이상선서
예고등기, 선순위 가등기, 가처분, 강제집행 등 처벌화된
상환을 기다리십시오.

▶근리사법/관리사 상담 ▶모텔/원목 상담
대표전화 011-686-8446 대표전화 011-686-8446

소매/관리/관리/관리(㎡)	건평(㎡)	최저가	소매/관리/관리/관리(㎡)	건평(㎡)	최저가
상동/관리/관리/관리(㎡)	197/75	10억	상동/관리/관리/관리(㎡)	11억	7950만
상동/관리/관리/관리(㎡)	294/70	19470만	상동/관리/관리/관리(㎡)	714/101	59150만
상동/관리/관리/관리(㎡)	408/221	59100만	상동/관리/관리/관리(㎡)	1214/101	89200만
상동/관리/관리/관리(㎡)	395/100	39500만	상동/관리/관리/관리(㎡)	414/100	19300만
상동/관리/관리/관리(㎡)	1214/101	89200만	상동/관리/관리/관리(㎡)	119	31820만
상동/관리/관리/관리(㎡)	1214/101	89200만	상동/관리/관리/관리(㎡)	144	31820만
상동/관리/관리/관리(㎡)	1214/101	89200만	상동/관리/관리/관리(㎡)	144	31820만

▶상가주택/주택 ▶공장

소매/관리/관리/관리(㎡)	건평(㎡)	최저가	소매/관리/관리/관리(㎡)	건평(㎡)	최저가
상동/관리/관리/관리(㎡)	294/70	29400만	상동/관리/관리/관리(㎡)	714/101	59150만
상동/관리/관리/관리(㎡)	408/221	59100만	상동/관리/관리/관리(㎡)	1214/101	89200만
상동/관리/관리/관리(㎡)	395/100	39500만	상동/관리/관리/관리(㎡)	414/100	19300만
상동/관리/관리/관리(㎡)	1214/101	89200만	상동/관리/관리/관리(㎡)	119	31820만
상동/관리/관리/관리(㎡)	1214/101	89200만	상동/관리/관리/관리(㎡)	144	31820만
상동/관리/관리/관리(㎡)	1214/101	89200만	상동/관리/관리/관리(㎡)	144	31820만

▶임야/농지 ▶아파트

소매/관리/관리/관리(㎡)	건평(㎡)	최저가	소매/관리/관리/관리(㎡)	건평(㎡)	최저가
상동/관리/관리/관리(㎡)	1850만	870만	상동/관리/관리/관리(㎡)	9700만	8700만
상동/관리/관리/관리(㎡)	3600만	2500만	상동/관리/관리/관리(㎡)	9200만	8400만
상동/관리/관리/관리(㎡)	2719만	1910만	상동/관리/관리/관리(㎡)	7900만	5600만
상동/관리/관리/관리(㎡)	5100만	2861만	상동/관리/관리/관리(㎡)	19200만	19200만
상동/관리/관리/관리(㎡)	3200만	2240만	상동/관리/관리/관리(㎡)	6200만	4300만
상동/관리/관리/관리(㎡)	5760만	4615만	상동/관리/관리/관리(㎡)	19200만	8400만
상동/관리/관리/관리(㎡)	3029만	2161만	상동/관리/관리/관리(㎡)	19200만	8400만
상동/관리/관리/관리(㎡)	8435만	5900만	상동/관리/관리/관리(㎡)	6700만	6300만
상동/관리/관리/관리(㎡)	6490만	3635만	상동/관리/관리/관리(㎡)	8200만	5740만
상동/관리/관리/관리(㎡)	4300만	3000만	상동/관리/관리/관리(㎡)	191500만	8050만